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었다. 사실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학과장은 다짜고짜 나를 불러 10월 2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계룡산으로 등산을 가자고 했다. 데모할 계획이 없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막무가내였다. 보호 차원에서 격리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으니 바람 쐬 겸해서 산이나 타자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나와 정대조, 김종채, 신상덕은 김진균 교수와 학과장을 따라 계룡산으로 가기로 했다. 재미있었던 것은 두 교수는 등산 준비를 완벽히 해 왔는데 우리들은 마지못해 따라온 판이라 구두를 신고 터덜터덜 나왔다는 것이다. 갑사에서 계룡산을 넘어갈 때에도 교수들은 훨훨 나는 듯이 산을 가는데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제대로 따라가지도 못했다.

우리는 동학사 아랫마을에서 하루를 묵고 수안보 온천에서 두 번째 밤을 보냈다. 이날 모두가 훌쩍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나는 대화는 대학 생활 중에서 교수들과 나눌 수 있었던 가장 진솔한 대화였다. 마냥 근엄하기만 하고 학생운동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줄 알았던 교수들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암울한 독재 체제하에서 고뇌하는 지식인의 한 단면을 훑쳐 볼 수 있었다.

새삼스러울 것도 별 대단한 것도 아닌 경험담을 장황하게 늘어 놓은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이다. 당시 학생운동을 함께 했던 많은 선배, 동료, 그리고 후배들이 감옥으로 끌려 간 데 반해서, 나는 대학을 온전히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운 좋게 남들보다 일찍 국립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유신시대를 온전히 살아 남았다는 것 자체가 이후 내 삶에 있어서 원초적인 부끄러움과 갇기 힘든 빛을 졌다는 부채의식으로 남아 있었다. 대학교수가 된 이후에도 이 부끄러움과 빛을 갚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다 갚지는 못한 것 같다. 유신 독재에 짓눌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푸르렀던 내 젊은 시절의 푸르른 기억을 안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뉴질랜드의 첫 한국인 변호사가 된 권태욱과 최근 밀양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이상학에게 묵은 우정의 인사를 보낸다. 아울러 긴급조치9호 시대를 함께 했던 모든 벗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참을 수 없는 것은 ‘클종’이었다

1977년 4월 7 한신대 고난선언 사건



김현수 한신대 신학과 75학번. 1986년 안산노동교회 창립, 1987년 노동상담소 운영, 1987년 어린 노동자들을 위한 야학 시작, 맞벌이 자녀들을 위한 탁아소 운영(현)

지난 4월 2일 오후, 1977년 ‘한신대 고난선언’으로 구속 수감된 동지들이 서울 석계역 근처 다방에서 만났다. 지금 영국에 유학이 있는 이영재를 제외한 오용식, 정상시, 김하범 그리고 나. 그동안 우리는 때때로 만났지만 고난선언 사건을 돌이켜 보고 그 의미를 묻는 자리로는 실로 28년 만의 일이었다.

다방에서 녹음기를 켜놓고 옛날을 돌이켜 생각하며 그 사건이 당시 어떤 정황 속에 있었는지, 또 현재의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놓고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실로 진지할 수 있었다. 참으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다. 어떻게 녹음을 풀지 걱정을 하며 돌아왔는데, 고마운 일인가, 녹음은 날라가버리고 말았다.

우리의 대화를 녹음에 담아놓는 일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날 확인할 수 있었다. 고난선언 사건은 지금도 우리 삶의 정체성의 일부라는 사실을. 때때로 만났지만 그 날 서로가 새삼 그토록 반가웠던 것은 그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본래 대담형식으로 글을 엮으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몇 토막으로 정리해 본다.

한신대

한신대 학우들은 1차로 들어온 친구들이건 미달이 되어서 2차, 3차로 들어온 친구들이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한신대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으로 무장하였다. 그건 이백 명도 안 되는 조그만 단과대학이었지만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하는 단순명료한 예언자적인 전투성과 “우리들은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는 공동체성에 기반하고 있었다. 스승들과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 있었고 학우들은 또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 있었다. 우리들은 이런 한신대 풍토와 그런 풍토에서 발생된 수많은 사건들을 추억할 수 있었다.

1976년

그래, 한신대는 우리가 1학년 입학하던 1975년에도 매일 시위를 했다.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목청껏 외쳤다. 휴업령으로 학교가 문을 닫고 신입생들이었던 우리는 얼마나 방황을 했던가? 아직 정체성은 약하고 정세를 읽어낼 눈은 흐리기만 할 때... 그리고 긴급조치의 연이은 발동, 학원간첩단 사건, 1976년 명동사건으로 존경하는 스승들의 구속 사건... 이렇게 1975년에서 1976년으로 이야기를 더듬어갔다.

그러다가 우리는 1976년도에 이르러 이야기에 더욱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다. 1976년은 우리에게 ‘암흑 처럼 남아 있다. 긴급조치의 위력에 우리는 놀려 있었다. 1976년도에 몇 차례 유신철폐와 독재타도, 긴급조치 해제를 외쳤지만 이름도 밝히지 못한 채 이루어진 유인물 사건이 전부였다. 그럴 때면 전교생들이 경찰에 의해 몸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그토록 정겹던 잔디밭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다.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OO가 프락치라더라.” 우리는 긴급조치의 위력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분열과 굴종을 강요받고 있었던 것이다.

고난선언 사건

우리는 1976년이 지나면서 1977년 새해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겨울방학 동안에 몇몇 동지들은 하월곡동 동월교회에서 빈민선교훈련에 참여하면서 새해에는 암흑을 통과하고 한신대의 전통,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하자고 다짐했다. 우리 학번 친구

들은 유신독재정권이 학교를 병영체제로 만들기 위해 학생회를 해체하고 만든 학도호국단 간부로 임명되었다. 우리는 순순히 학도호국단의 간부가 되고, 그 학도호국단의 이름으로 유신독재정권과 긴급조치를 “아니오” 하는 사건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시위에 메고 갈 대형 나무십자가를 몰래 만들고 유인물을 준비했다.

드디어 4월 7일 채플실에서 고난선언을 낭독하였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날 고난선언 사건을 통해 교수님들과 전교생들이 다시 하나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난선언이 낭독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우리들을 보면서 교수님들과 전교생들이 보여준 그 눈물과 다짐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자부심이 되살아나는 것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서울구치소로 넘어와 있던 그 해, 5월 11일 다시 한신대에서 민주화시위가 일어나고 사랑하던 친구들이 다시 곧 서울구치소로 넘어올 것이라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웃었다.

반공법

우리 모두는 시위를 준비하면서 긴급조치9호위반을 예상했었다. 그런데 고난선언 내용 중에 국가보위에관한특별법과 사회안전법 위반 평화통일에 관한 내용이 있다 하여 반공법이 적용되었다. 청천병력이었다. 반공법이 적용된다는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회색빛을 띠며 나에게 다가왔던 것을 잊을 수 없다. 당시만 해도 대학생 시위에 반공법 적용은 없었다.

반공법은 1심 재판 막바지에서 빠졌다. 그렇지만 이 반공법 적용을 통하여 민족의 분단 현실과 레드컴플렉스가 얼마나 우리를 옥죄고 있는지를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반공법이 적용되면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한신대 친구들과 정말로 많은 분들이 기도로 함께 싸워주셨다. 재판 과정 자체가 불꽃 튀는 투쟁의 과정이 될 수 있었다. 많은 인권변호사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신이 난다. 어떤 강한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던 재판이었다.

우리는 2년 내외의 감옥살이를 하였다. 감옥이야말로 ‘신학’ 하는 자리였다. 생각할 수 있었다. 책을 읽을 수 있었다. 민족분단과 민중의 현실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민중들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신학'임을 느낄 수 있었다.

헤어지고

당시 학도호국단 학생대장(학생회장)을 했던 이영재 목사는 늦게서야 영국에 유학을 하고 얼마 전 학위를 받았다. 오용식 목사는 무주에서 실업극복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 정상시 목사는 안양에서 우직하게 민중교회를 하고 있다. 나도 이곳 안산에 와서 안산노동교회와 들꽃 피는마을을 하며 산지 벌써 20년에 이르고 있다. 당시 유인물을 작성하고 주변정세를 가장 민감하게 읽어내던 학보사 편집장이었던 김하범은 요즈음 여러 가지로 사는 것이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날선 가슴을 지니고 있다.

사실 감옥에 간 우리들보다 학교에 남아서 옥바라지 해주고, 친구들을 감옥에 보내고 학교에 남아있다는 자책감으로 우리보다 더 힘들어 하며 술을 마셔대야 했던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해야겠다. 감옥으로 간 우리들보다 남아있던 친구들이 사실 더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긴급조치9호'는 선물



박인혜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75학번.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 인천여성연화 회장, 민주와통일로기는인천시민연대 공동대표, 한국여성연화연합 상임대표(현)

1975년 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국가가 내게 준 일생일대의 선물은 '긴급조치9호'였다. 나는 '긴급조치9호'가 내 인생에 미칠 영향과 의미를 짐작도 못한 채 대학생활을 시작하였다. 채플이 열릴 때마다 선배들이 뛰어나와 구호를 외치고 끌려나가는 일이 반복되고 휴교령까지 내려졌지만 나는 갓 시작한 대학생활이 즐겁기만 했다. 그러나 그 행복과 '긴급조치9호'는 전속력으로 마주보고 질주하다가 정면으로 충돌하고야 말았는데 바로 1978년 5월 4일이였다.

1977년 9월 나는 학교호국단 종교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때 나는 막 학생운동을 하려고 결심한 터여서 임명을 거부하였으나 곧 생각을 바꾸었다. 당시 이대는 형식은 학교호국단 체제로 바뀌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학생회 시절의 자율성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나는 이 점을 활용하기로 했다. 나는 종교부 사업으로 세미나모임을 만들어 공부하는 한편(이 모임은 기독교학생회로 발전하였다) 지하에 잠적해 있던 서클들과 만나는 통로로 활용하였다.

그러던 중 1978년 새 학기가 되자 대학기는 심상치 않게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조심스럽게 만나오던 우리들은 무언가 해야 한다는 역사적 직감을 공유하고 의논하던 중 '4.19기